

결핵문학의 전통과 전승



대한결핵협회가 창립한 때는 세 해에 걸친 전쟁이 끝난 1953년 11월이었다. 그 뒤 예순한 돌을 넘기며 오랜 세월 대한결핵협회가 한 일은 매우 다대했다. 경제·정치·사회·문화에 걸친 모든 부문에서 압축적 근대를 이루었던 급격한 변화와 나란히 활동 또한 바빴고 눈부셨던 셈이다. 중장년층이라면 누구나 청소년기에 몇 번쯤은 크리스마스 썰을 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책갈피나 우표첩 속에 간직했다면 뒷날 아련하게 뒤적거리곤 하는 즐거움은 적지 않다. 그런 추억은 어느새 대를 물려 국민적인 것의 하나로 올라섰다. 결핵 퇴치 기금을 위해 발행한 크리스마스 썰 또한 대한결핵협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본격화했다.

결핵은 결핵균 감염으로 말미암은 직접 전염병이다. 인류사와 함께한 오랜 내림을 지녔으나 그것이 세계 단위로 퍼지게 된 때는 산업사회의 도래와 맞물린다. 결핵을 근대의 병이라 일컫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결핵의 만연은 인구 밀집, 도시 발달, 사람 교류와 같은 근대 사회의 변화를 기본 조건으로 삼았다. 게다가 공업과 상업 발달은 그것을 획기적으로 부추겼다. 서양에서는 18세기 이래로 제분·제사·방직과 같은 경공업에서부터 금속·도기와 같은 중공업에 걸쳐 자본주의 조직과 대량생산을 향한 크고 작은 공장이 급속히 들어섰다. 그러한 공업도시는 인근 청년 남녀를 일꾼으로 흡수했다. 그에 맞추어 상업의 발달도 덩달았다.

게다가 근대 산업도시의 옥내 환경은 시민 거의 모두를 집단생활자로 만들었다. 전등 발명으로 달린 상태에서 긴 시간 하는 밤일이 가능해졌다. 일터에서 머물고 일하며 모여 담소하는 문화가 자연스러워졌다. 이러한 집단생활 양식이야말로 고스란히 짧은 시간에 무자각성 결핵을 만연케 한 전염 경로였다. 게다가 버스·전차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 발달이나 영화관과 같은 대중문화 소비 방식 또한 거기에 기름을 더했다. 일터와 집의 분리로 말미암은 단거리 출퇴근 과정에서 그들은 다수를 밀착상태로 수용함으로써 결핵균 전염에 호기를 제공했다. 사회의 결핵이 집으로 옮겨오고 집의 결핵이 사회로 넓혀지는 계기는 이러한 생활 조건 변화와 함께했다.¹⁾

우리의 경우도 예속 근대였을망정 결핵은 근대 사회의 중심 문제로 무게를 더해 왔다. 근대적 공공성과 군집성이 커지면서 알게 모르게 결핵이 만연한 것이다. 게다가 결핵은 문학사에서 특별한 뜻을 지녔다.

1) 近藤宏二, 『人體と結核』, 岩波書店, 1942, 118~121쪽.

낭만주의자에게 결핵은 창조적 열병의 하나였다. 가난과 고통, 정양과 격리, 고독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결핵은 그들의 창조를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 슬한 명망 문학인이 결핵을 안고 뒹굴었다. 을유광복 이전 문학인만 하더라도 나도향·이상·김유정·권환·이용악·현진건·채만식·허민과 같은 이는 결핵으로 이성을 떴다. 이광수·이태준·임화·지하련·백석과 같은 이는 결핵을 앓았다. 무명 문학인까지 들자면 수는 엄청나게 불어난다.

그런데 우리 근대 결핵문학 가운데서 마산은 집단 활동으로 알려진 곳이다. 마산은 근대 초기부터 침략자 제국주의 왜로의 균형이자 휴양 도시로 탈바꿈하면서 결핵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일찍부터 국립마산결핵요양원을 중심으로 마산교통요양원·국립신생결핵요양소·마산제36육군병원·마산공군병원요양소와 같은 결핵 전문치료소가 마련되었다. 오늘날에도 국립 결핵 병원인 국립마산병원이 한결같이 남아 있다. 그런 곳의 결핵 환우가 작품집을 내거나, 연고 문인이 오가며 마산 지역 결핵문학을 일구었다. 그것이 꽃피었던 때는 전쟁기였다. 마산결핵요양원 환우들이 잡지 『요우』를 내고 이어서 『청포도』와 『무화과』라는 시동인지를 낸 것이다.

『청포도』는 1952년 9월에 창간호를 낸 국립마산결핵요양소 요우의 유인본 시동인지다. 그들은 1집을 낸 뒤, 1954년 4월까지 두 해 동안 들쭉날쭉 4호까지 냈다. 결핵 투병 생활을 겪는 같은 처지에 놓인 문학도들의 열정이라는 점에서 이채를 띠었다. 그들에게 시란 바로 완치된 삶의 미래를 향해 가꾸는 꽃밭이었던 셈이다.

시를 쓰고 시에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로서 생명을 기른다는 것 외에 또 무엇이 있으랴? 시에의 귀의
- 그것은 주검과 대결하면서도 오히려 미와 진실을 추구하는 우리의 자상의 시정신이라야 하겠다.

“주검과 대결하면서” “미와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환우의 열망이 잘 담겼다. 그들이 동인 이름을 굳이 ‘청포도’로 내세운 뜻도 풋풋하고 싱싱한 청포도에 자신들의 바람을 투사한 결과였을 것이다. 『청포도』 동인은 요양소와 시내를 오가며 지역 문학과 어울렸다. 그 인연으로 평생 문학인으로 산 박철석·민용식과 같은 이도 있다. 『청포도』 발간에 앞장섰던 김대규 또한 오늘날까지 나오고 있는 대한결핵협회 기관지 『보건세계』의 초기 간행을 맡은 공이 컸다. 마산의 결핵문학은 『청포도』 이후 몇 해 잠잠하다 1960년 1월 무화과동인회의 『무화과』 발간으로 되살아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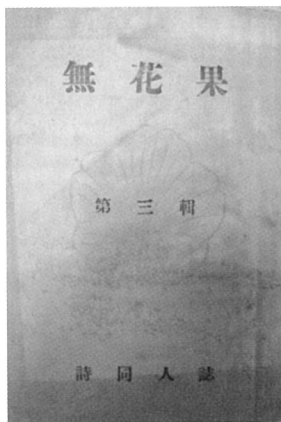
여기 모인 동인들은 ‘창조의 희열’을 통해 ‘생의 불안’과 ‘인간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이룩하려는 군상인 것이다.

동인 최백산이 쓴 창간사 가운데 한 곳이다. 삶의 불안과 부조리를 극복하겠다는 환우로서 뜻이 뚜렷하다. 『무화과』는 1961년 6월까지 6집을 냈다. 두 해에 걸친 활동에서는 『청포도』와 같았으나, 동인 수가 10명을 넘었고 2호를 더 냈다. 50쪽 안팎의 얇은 동인지였지만, 환우의 쾌유의 희망을 맑은 가포 바닷물처럼 담아 올린 작품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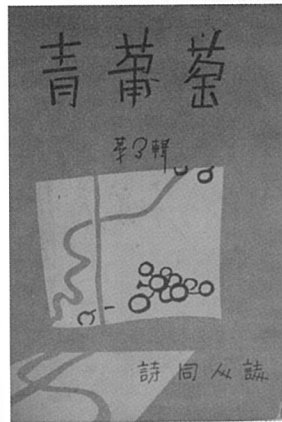
노랑저고리 다홍치마 비단신 들
 나 먼저 입는다고 서둘던 아이들
 이 설은 누구 손 있어 매어 주나 웃고름
 - 정인에, 『시조 2수』 가운데서

『무화과』 1집에 실린 정인에의 시조다. 해가 바뀌고 설이라 떠들썩한 분위기다. 가족과 떨어져 갯가 요양소에서 하루 종일 천장을 쳐다보며 지내는 몸이다. 고향 집에 있을 아이들을 떠올리니 한숨만 깊어간다. 어느새 설빔을 입고 신겨줄 어미가 없는 아이들이 되어버렸다. 집안의 살림살이는 또 어떠한 것인가. 설을 맞은 여자 환우의 마음이 쓰리다. 그리움과 죄책감, 안타까움까지 객혈처럼 문힌 작품이다. 그런데 우리 근대의 집단적 결핵문학은 항도 마산 한 곳에 그치지 않는다. 게다가 개인별로 그것도 작가를 넘어서 일반 공중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갈무리한다면 양은 얼마만 할 것인가? 국문학계에서도 이제까지 나도향·이상과 같은 몇몇 둘레에 관심이 머물렀을 따름이다. 따라서 우리 결핵문학의 전통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대상과 범위를 크게 늘려야 한다. 한정호와 같은 연구자는 결핵문학의 속살을 요양체험, 치료체험, 결핵환자의 교류 체험의 셋으로 묶었다.²⁾ 거기다 결핵환자를 다룬 여러 갈래의 작품, 결핵을 다룬 언론문과 보고문학까지 더하면 범위는 훨씬 커진다. 게다가 결핵문학 작품을 임상자료로 쓰는 임상문학론까지 나아갈 수 있다.

결핵문학은 우리 근대의 중요 생활사를 일깨워 주는 전통이다. 그에 대한 발굴과 보존, 연구와 홍보를 벌린 계승은 뜻 깊다. 결핵 퇴치를 향한 먼 국가적 도정에서 유효한 길잡이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그 일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장차 결핵박물관까지 내다볼 수 있으리라. 특정 질병을 주제로 삼은 우리나라 초유의 전문 박물관이 그것이다. 대한결핵협회는 오랜 세월, 결핵 퇴치를 위한 핵심 역할을 도맡아왔다. 결핵에 대한 우리 민족의 총체적이고도 깊이 있는 인문학 담론에도 문고리를 쥐고 있다고 해서 지나친 말이 아니다. 결핵의학과 결핵문학의 통합부터 시작해, 결핵인문학의 창발까지 걸음을 바빠 서두를 일이다. †



무화과 3집 표지



청포도 3집 표지

2) 한정호, 『마산의 결핵문학 연구』, 『지역문학의 이량과 고랑』, 도서출판 경진, 125쪽.